

**특별한** 관심을 즉시 기울이지 않는다면 NATO는 핵보유에 의한 전쟁 억제라는 자체 방침과 더불어 곤경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로 인해 동맹의 해체를 초래할 수도 있다. 동구와 서구를 막론하고 유럽의 비핵화(非核化)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를 생각해보지 않은 듯하다.

부시 대통령을 대신하여 제임스 베이커 미국무장관은 5월 3일 브뤼셀에서 있었던 북태평양협의회 외무장관 특별회의에서 Follow-On-To-Lance(FOTL) 유도탄 개발 및 155mm 개량 핵포탄 유럽배치계획의 취소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만이 좀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을 뿐, 대다수 국가들은 적극적인 환영을 표명하였다.

5월 9일과 10일간 캐나다 Kananaskis에서 개최되었던 핵계획그룹(NPG) 국방장관회의에서는 이 계획을 더욱 발전시켜 유럽재래식전력(CFE)감축에 관한 조약에 서명직후 단거리 핵전력(SNF)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결정은 감축이 완료된후에나 그러한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군비통제 및 군축에 관한 포괄적인 개념속에서 유지되었던 이전의 입장을 변화시켰다.

이와같은 결정의 결과와 유럽의 상황변화가 NATO의 핵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일련의 동맹국 자료회의와 이에 이은 6월초 동맹국 정상회담에서 고려될 것이다. 이에 앞서 부시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5월말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이며, 재래식 및 전략전력, 즉 CFE와 START에서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협상한도에 합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그 쟁점들은 흐려지고 있다. 소련측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의 성명을 환영하면서 전술 공대지 유도탄(TASM)을 개발, 배치하려는 NATO의 계획에 관해 즉각적인 우려를 표명하였다. 소련 국방장관인 드미트리 야조프 원수는 최근 한가지 형태의 핵무기를 더욱 강력하고 정확하며 장거리인 다른 형태의 것들로 대체하는 일은 NATO와 동구간 협력과

관련하여 브뤼셀에서 천명된 사상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구의 평화운동가들은 그들의 행동을 통일하고 있는 반면 동맹국의 고위직 장관들은 혼란에 빠져있다. Kananaskis로 가는 도중 M. Guy Coeme 벨기에 국방장관은 이제 우호적인 국가를 공격할 수 있을 뿐인 무기들을 파괴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대답은 재래식이건 핵이건, 권총에서 대포, 유도탄 및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기체계들은 적의 병력이나 시설물이 우호적인 영토에 있든지, 아니든지에 관계없이 이를 공격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거리가 짧을수록 독일에는 더욱 치명적」이라는 케케묵은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논리적으로는 완전한 오류이다.

현실적으로 무기체계와 관련한 이와같은 논란은 본질을 망각하고 있다. 실제 제기되어야 할 질문은 「NATO는 아직 필요한가?」하는 것이다. 서구에서 목청을 돋우는 무리들은 가능한 빨리 나토가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현재의 국제정세가 아무리 우호적이라 할지라도 서구동맹의 효과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크레믈린측은 그들의 노력을 포기할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나토의 지속적인 존립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나토 회원국만이 아니다. 중앙 및

一笑一少一怒一老

요즘엔 호박도 넣나?

버스가 정류장에 섰을때 한 女大生이 탔다.

제일 뒷좌석에 5명의 男學生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사이를 헤집고 이 우람한 여대생이 앉으면서—

「어휴, 샌드위치 되겠네.」

그러자 한 남학생이 되받았다.

『요즘 샌드위치엔 호박도 넣나?』

동부유럽의 새로운 정부들도 스스로 나토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으며, 소련의 고위 정치층들도 그들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서구의 안보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깨닫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NATO의 약화가 기본 나쁘지는 않을 것이며, 특히 자국내에서 나토의 몰락을 원하는 부류들을 제압하지 못할수도 있을 것이다.

공공연하게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제 효력이 없으므로 핵에 관해서라면 아주 민감한 서구측을 감안할때, 이와 같은 비난은 이처럼 특정 핵체계로 집중될 것이다. TASM이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유럽의 戰區핵전력(TNF)중 유일하게 존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TASM은 현재 개발중에 있는 미국의 SARM-2 스탠드-오프 유도탄과 유사한 형이며, 예상 사거리가 약 5백km(3백 마일)이다. 전투기에 적재할수 있으므로 소련의 방공망을 통과하지 않고도 발사할수 있게 되어 있다.

중거리 핵무기(INF: 퍼싱 2 및 지상발사 순항유도탄)의 폐기후 SNF로 알려진 지상배치 무기로는 현재 구형 랜스(Lance) 유도탄체계와 핵발사砲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지상배치체계들에 대한 감정적인 저항이 강력함에 미루어볼때, 이것들은 향후 수년내 협상을 통하여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 있는 핵무기를 한꺼번에 폐기하자는 논란은 상당히 그럴듯하게 여겨지며, 정치적으로도 지지를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TNF는 원래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우월한 재래식 전력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유일한 보장수단으로서 정당화되었었다.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분열과 소련군의 감축예정으로 유럽에서는 더 이상 그와같은 보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TNF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미국의 전략적 핵 보장이 유지되고 있고, 유럽에서도 영국과 프랑스가 핵병기창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그들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으며, 주요 목적은 자국 영토에 대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과 프랑스의 것은 「최후의 보루」 전력으로 자국 영토가 직접적인 파괴위협을 받지않는한 동맹국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사용될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같은 병기창은 동맹국들로서는 믿을 만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

유럽 전구핵전력의 경우 유도탄, 대포 및 항공기와 같은 수송수단은 유럽국가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탄두는 정치, 군사상 책임자의 반출허가가 있을 때까지 미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

짧아진 사거리는 소련 본토의 초토화 가능성을 배제하게 되며, 따라서 「유연 대응」안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더우기 이것은 핵위협을 산개시키고, 위기시 동맹국가의 결속을 보여줌으로써 그 자체가 주요한 억제력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속없이 나토가 있을 수 없다.

유럽의 핵전력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미국의 회회로서는 미군부대를 유럽에 오랫동안 주둔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영국과 프랑스군도 독일에 계속 주둔할수 없게 될 것이며, 유럽은 어떤 핵무기에 대해서도 무방비상태로 남게 될 것이다.

유럽의 안보구조, 서유럽연합에 기반을 둔 유럽방위협정, 그리고 안보차원까지 포함한 유럽공동체의 확대등에 관하여 막연한 이야기가 오가지만 아직까지는 막연한 그대로 남아있다. 만일 이러한 생각이 구체적인 개념과 실제적인 계획단계에 이른다면 아마 나토는 다른 형태를 보이게 될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나토가 회원국가뿐만 아니라 소련을 포함하는 외부국가를 위해서도 굳건하고 유일한 유럽의 안보 보장기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속마음으로는 이들 모두가 그 사실을 느끼고 있다. 이들은 점점 불안정해져가는 세계에서 안정의 기반을 위태롭게 할수 있는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조심해야만 하는 것이다. (煥)

<Miltech 90/6>